

멀리뛰기 진도출신 정순옥 한국 육상 첫 금메달 착지



4차시기서 6m53 뛰어 ... 김유석 장대높이뛰기서 銀

진도 출신 정순옥(27·안동시청)이 한국 육상에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을 선물했다.
 여자 멀리뛰기 간판스타 정순옥은 23일 광주우시 아오티 주경기장에서 열린 광저우 아시안게임 육상 여자 멀리뛰기에서 6m53을 기록해 카자흐스탄의 올라 리파코바를 3cm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날 정순옥의 기록은 자신의 최고 기록이자 한국최고기록인 6m76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지만 시즌 최고기록은 6m46보다는 훨씬 좋은 기록이었다. 아울러 4년 전 도하 대회에서 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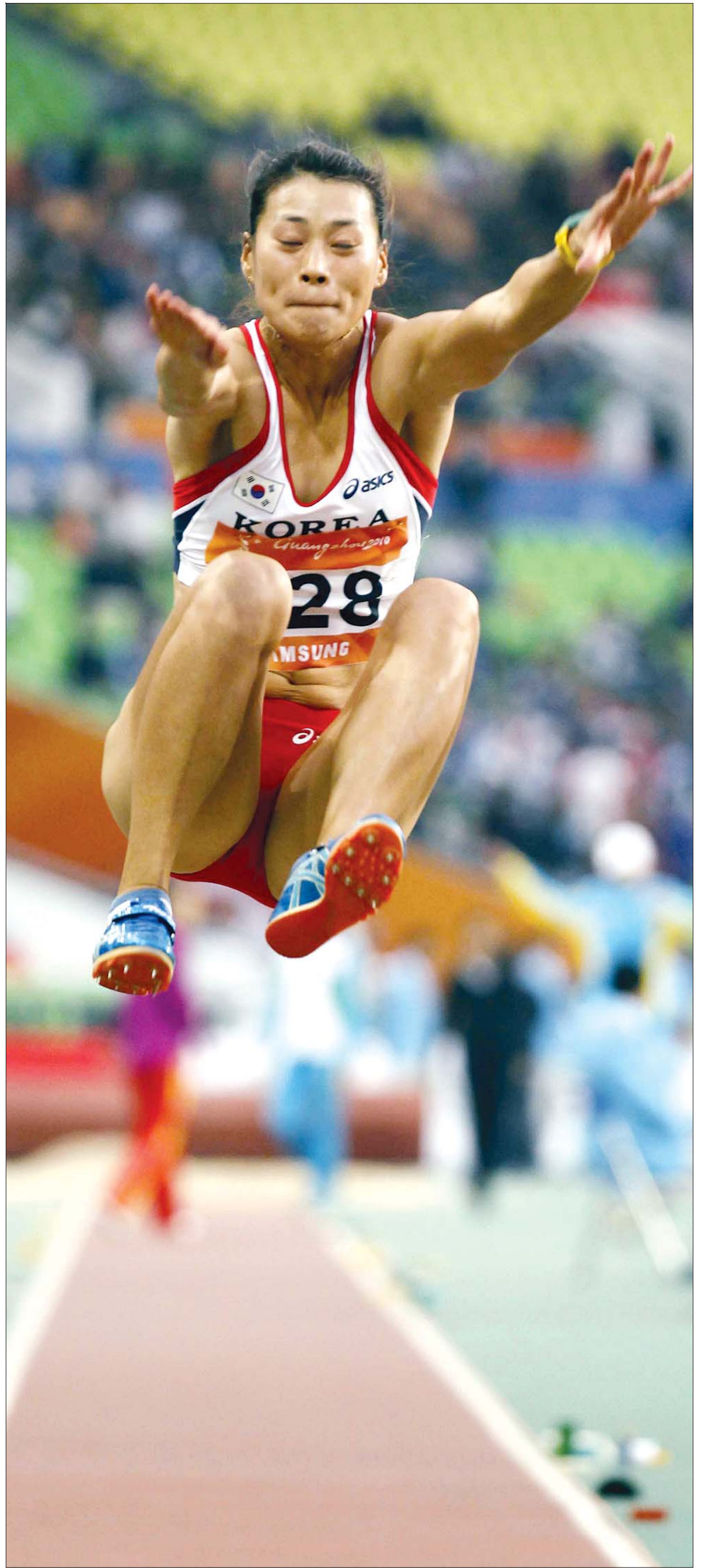
에 그쳤던 아쉬움을 말끔히 씻었다.
 1차 시기에서 6m34를 기록한 정순옥은 2차 시기에서 실격한 뒤 3차 시기에서도 6m22에 머물렀다. 하지만, 4차 시기에서 6m53을 뛰면서 중간순위 1위였던 리파코바를 제치는 데 성공했다.
 5차 시기 때 6m43을 뛴 정순옥은 강력한 라이벌인 리파코바가 마지막 두 번의 시기에서 모두 실격을 당하면서 극적으로 금메달을 차지할 수 있었다.
 정순옥은 진도출신으로 진도 의신초 3학년 때 육상에 입문했다. 목포

상도초-상도여중-목포제일여고를 졸업했으며, 전국체전 10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국내 여자 멀리뛰기의 명실상부한 1인자다. 지난해부터 미국인 코치 랜디 헨팅턴과 아시안게임을 준비, 생애 첫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에 앞서 22일 육상 남자 장대높이뛰기 국내 1인자인 김유석(28·대구시청)도 5m30을 넘어 2위 레오니 안드레예프(우즈베키스탄)와 공동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국이 이 종목에서 메달을 따기는 1998년 방콕 대회에서 김철균이 은메

국가별 메달 순위
(23일 20시 현재, 한국시간)

순위	국가	금	은	동
1	중국	163	83	79
2	한국	64	55	74
3	일본	33	61	68
4	대만	12	11	29
5	이란	12	9	15
11	북한	5	10	15

달을 수확한 이후 12년 만이다.
 2006년 작성한 한국기록(5m63)을 4년째 보유 중인 김유석은 이날 자신의 기록에는 못 미쳤지만 초반부터 자신 있게 바를 넘어 적박한 한국 육상에 귀중한 메달을 안겼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3일 광주우시 아오티 주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육상 멀리뛰기에서 정순옥이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 /연합뉴스

‘神弓’ 윤·옥·희



단체이러 개인전도 금빛 과녁 2관왕



한국 여자 양궁의 간판 윤옥희(25·예천군청)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윤옥희는 23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아오티 아처리 레인지에서 벌어진 대회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중국의 예이스 청밍을 세트스코어 6-0(27-25, 28-27, 28-27)으로 심겁게 눌렀다.
 윤옥희는 이로써 지난 21일 단체전 우승에 이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 메이저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얻었지만 개인전 금메달이 없던 윤

옥희는 마음 한 구석에 도사렸던 영어 리를 풀었다. 이번 대회에서 그간에 치렀던 한국과 중국의 양궁 맞대결치고는 심거운 한판이었다. 윤옥희는 1세트에서 9점을 3발 쏘아 다소 불안했으나 청밍은 9점을 겨우 쏘더니 결승에서 보기 어려운 점수인 7점을 쏘고 말았다. 세트점수 2점을 미리 챙긴 윤옥희는 2세트에서 여세를 몰아 첫발을 10점에 꽂았다. 그리고는 9점을 두 차례 쏘아 깔끔한 방아박을 쳤다.
 청밍은 9점과 10점을 쏘아 따라 붙는 가 했지만 또 세번째 화살을 8점에 꽂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 2세트마

지 쉼겨 4-0으로 달아나게 되자 윤옥희는 더 자신감 있게 시위를 당겼다. 9점, 10점, 9점을 꽂았고 청밍은 9점만 세 차례 되풀이하면서 세 번째 세트도 윤옥희에게 아쉽게 내주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이에 앞서 기보배(22·광주시청)는 이 대회 8강전에서 중국의 예이스 천밍과 풀세트 접전을 벌인 끝에 세트스코어 4-6으로 졌다.
 한국은 남녀 단체전에 이어 여자 개인전에서도 우승하면서 이번 대회에 걸린 양궁 금메달 4개 가운데 3개를 획득했다. 나머지 1개가 걸린 남자 개인전은 24일 열린다.
 /연합뉴스

안이슬 인라인롤러 300m 금빛 질주

장수철·엄한준 동메달



안이슬(18·청주 여상·사진)이 광저우 아시안게임 인라인롤러 여자 300m 타임 트라이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안이슬은 23일 중국 광저우 벨로드롬 내 인라인롤러 경기장에서 열린 인라인롤러 여자 300m 타임 트라이얼에서 26초870의 기록으로 우승했

다. 은, 동메달은 중국의 장잉루(26초893), 리원원(27초362)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부터 정식종목이 된 인라인롤러의 첫 금메달리스트가 된 안이슬은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주니어 부문 4관왕, 올해 아시아선수권대회 성인 부문 4관왕에 오른 기대주다. 안이슬은 오후에 열린 500m 스프린트에서는 44초885를 기록해 44초850의 활위팅(대만)에 이어 은메달을 추가했다.

남자부에서는 장수철(22)과 엄한준(23·이상 경남도청)이 동메달 1개씩 차지했다.
 장수철은 300m 타임 트라이얼 결승에서 25초267을 기록해 송정양(24초777), 로웨이린(25초026·이상 대만)에 이어 3위에 올랐고 엄한준은 500m 스프린트에서 41초927의 기록으로 송정양(41초440), 로웨이린(41초447)에 이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ShinYang Park Hotel Dinner Show

해바라기

2010. 12. 16(목)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 볼룸

Sunflower Dinner Show ₩150,000원(VAT포함)

※ 15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주최및주관 (주)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예약및문의 T. 062) 228-4711~2

Merry Christmas

christmas family buffet

▲ 12월 24일 | 18:00~21:00

▲ 12월 25일 | 12:00~15:00

대인 | 30000 (VAT포함)

소인 | 20000